

밥 익는 냄새에 홀린 토끼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국민학교 들어갈 즈음에 할머니께서 낡은 책상을 하나 얻어 오셨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타지로 돈 벌러 나가시고, 할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이서 둘째 이모네 밭거리(바깥채)에 살 때였다. 쫓기다시피 막 돌아온 고향이라, 살림살이라곤 이불 몇 채가 전부인 단칸방이었다. 단칸방에 낡은 책상이나마 떡 하니 놓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누런색 합판을 대고 만든 싸구려 책상이라 여기저기 굽힌 자국도 많았고, 내 키에 비해 터무니없이 커서 책상 앞에 앉으면 가슴팍까지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친구들과 뛰놀다 들어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에도 그저 책상에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장작이 귀해, 밥은 일출봉 분화구에서 베어 온 출을 지퍼 해 먹었

다. 육지에서는 ‘꿀’이라고 부른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베어 온 출로 지붕을 이고 새끼를 꼬아 줄로도 썼지만, 불을 지피는 데도 맞춤형이었다. 불을 지피 밥을 할 때면, 옆에서 할머니는 “술술 지드라. 와랑와랑 해분다.” 하고 당부하셨다. 한꺼번에 출을 넣으면 활활 타오르니 조금씩 살살 지피라는 말씀이었다.

어느 정도 불을 지피고 나면, 출이 작은 벌레처럼 잘게 부서지며 빨간색 불빛이나 노란색 불빛을 내뿜으며 일렁일렁 거리다가는 조금씩 회색빛 재로 바뀌며 아래에 쌓여 갔다. 부지깽이로 괜히 일렁거리는 불빛을 쿡쿡 찌러 보기도 하고, 출을 살짝 들어 주어 불이 확 달아오르게 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따스하게 번져오는 온기도 좋았지만, 빨갛고 노랗게 꿈틀거리며 달아오르는 불빛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층층이 쌓이며 환하게 이글거리는 불빛은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방 안에 책상이 놓였지만, 교과서 말고는 딱히 읽을 만한 책은 없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라곤 “대중가요”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뿐이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우리 집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대중가요’라고 적혀 있어서, 처음에 그 제목을 읽었을 때, “대중국가요”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이라도 해 주려는 듯, 잘생긴 젊은 남자와 여자가 손을 들고서 마치 어디로 가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진이 표지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책을 들춰보아도 남자와 여자 사진이 몇 장 실려 있을 뿐 읽을 수 없는 콩나물 기호만 가득했다.

그 즈음에 할부 책 장수가 마을에 온 적이 있다. 일출봉 자락 잔디밭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웬 낯선 아저씨가 다가왔다. 길 묻

는 관광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우리들을 보자 환히 웃으며 다가왔다. 책을 여러 권 꽂아 놓은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교과서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총천연색으로 인쇄된 책을 슬쩍 보여 주며, “공부 잘 하게 해 주는 책인데, 너네 집 어디냐?” 하고 물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았다. 할머니밖에 없는 나는 엄두가 나지 않아, 우리 집을 알려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랫집 친구나 옆집 친구가 사면 빌려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끝내 빌려 보지 못했다. 친구가 읽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쩍 책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판자처럼 두꺼운 종이에 칼라로 인쇄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야기가 나오는 서양 동화책이었다. 흘깃흘깃 보이는 장면이 모두 화려해 보였다. 크고 웅장한 성도 보이는 것 같고,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자들의 그림도 보였다. 너무나 보고 싶어 아랫집 친구에게 보여 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친구는 “공부 잘하게 해 주는 책인데, 아저씨가 딴 사람한테 보여 주면 공부 못하게 된단 해서!” 하며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할부 책 장수의 상술을 너무 이른 나이에 알아버렸다.

불을 지피며 해 먹는 밥은 거의 조밥이었다. 미리 삶아 놓은 보리쌀 조금에 죽쌀을 잔뜩 넣은 밥이었는데, 밥맛이 좋은 줄은 몰랐다. 양식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랬겠지만, 고구마를 송송 썰어 위에 얹어 밥을 하곤 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구마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불을 피우고 장난을 치던 일도 이력이 날 즈음, 어느 순간 밥 익는 냄새를 알게 되었다. 설익은 곡식의 비릿한 냄새와 폴폴 부풀었다 꺼지는 끈끈한 밥 국물 냄새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할머니가 불을 지피 밥을 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기도 했고, 내가 직접 불을 지피 밥을 하며 냄새를 맡아 왔을 텐데, 밥 익는 냄새를 왜 그때서야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너무 신나게 놀다 들어와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먹는 조밥보다 밥 익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다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집에 책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끔씩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어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때마다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쫓긋 기울였다. 1, 2학년 때는 아버지뻘 되는 남자 선생님이었지만, 3학년이 되어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더 좋았다. 우리 학교가 부임한 첫 번째나 두 번째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젊은 선생님이셨다. 까맣고 술이 많은 단발의 머리카락이 얼굴 가장자리를 많이 가리는 모습이어서 어딘지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방과 후에는 선생님 하숙집으로 떼 지어 몰려가 웃고 떠들며 놀았다. 여름이 다가올 즈음에 “내일부터는 일출봉에 해 뜨는 것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한동안 아침 일찍 일출봉에 올라 해돋이를 보기도 했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 제 시간에 올라간 적은 별로 없지만, 늦게라도 꼭 올라갔던 기억이 난다.

이런저런 옛날이야기며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도 자주 해 주셨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토끼 이야기였다. 옛날 옛적에 토끼가 한 마리 살았는데, 하루는 토끼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냄새여서, 한참을 뛰어 냄새 나는 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가 보니 커다란 가마솥에 밥이 익어 가고 있었어요. 토끼는 그 밥이 몹

시도 먹고 싶었어요. ‘어, 이건 바로 내 애긴데’ 생각하며 곧장 이야기에 빨려들었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다. 하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였다. 선생님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으로 기약했지만, 나는 다음 수업 시간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필이면 그때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되면서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밥 익는 냄새에 혹한 토끼 이야기’가 실린 책이 있을까 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 살펴 왔지만, 지금까지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실린 책은 보지 못했다. 가스레인지로 쓰고 압력 밥솥으로 밥을 하게 되면서, 칙칙 거리는 소리에 가려서인지 예전의 그 진한 밥 익는 냄새를 다시 맡기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토끼가 과연 맛있는 밥을 먹게 되었는지 상상해 보는 일은 늘 작은 즐거움을 안겨 준다.

그때, 밥 짓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토끼야, 밥 냄새가 그리 좋으냐? 그럼, 밥을 먹게 해 주마. 그런데, 그 전에 세 가지 일을 해야만 한단다.” 하며 세 가지 과제를 내주는 이야기는 어떨까?

토끼가 밥 냄새에 취해 있을 때, 거북이도 나타나고 원숭이도 나타나더니 숲 속의 온갖 동물들이 모두 다 모여들었어요. 여우가 사회를 보면서, 숲 속 동물들이 밥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자랑을 벌였어요. 모두들 신나게 자기 재주를 뽐냈지요. 그런데 장기자랑이 끝난 뒤에 보니, 모두 모여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밥이 불어났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좋겠다.

아니면, 토끼 곁으로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밥이 맛있게

되었네. 맛 좀 볼래?” 하며 밥에다 고소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토끼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랬더니 토끼가 황소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숲이 놓여 있던 화덕에 여자아이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남대문만큼이나 커다란 성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토끼 등에 타고 대궐 같은 집들이 즐비한 성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라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밥과 토끼에 얽힌 상상은 끝없이 이어진다. 시대